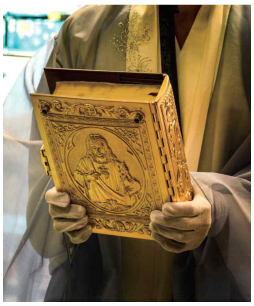


성서주간 11/24~30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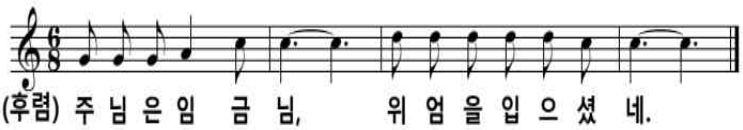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다니엘 7,13-14

화답송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제2독서 | 요한 묵시록 1,5ㄱㄷ-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8,33ㄴ-37

성가 | 입당성가 [75] 예물준비 [218]
영 성 체 [188] 파 견 [73] 1~3절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전명자 베로니카	조성자데레사
어머니 김주연 안나	송요셉
장흔 코르넬리우스 신부 선종 2주기	송요셉
이정진 박현진 김용기 홍봉운 김귀순 민병택	익명
한시찬 김순환 송준호 김경련 전명자	익명
추승연 베로니카	박지민
현봉학 곽연식 이삼열	유기원마리아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	구세주의모후

생미사	봉헌
윤동진 프란치스코	김승애
오정민 세례자요한	익명
김은경 세노비아, 권명재	유기원 마리아
김가롤로 신부	맨하탄 교우
이재수 바르나바	이신혜 대데레사
이경용	한한숙
부원희 세실리아 영명축일	성모회
김효주 수녀	맨하탄 교우
이지현 캐서린 가정	이재용프란치스코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1월 24일	장혜윤	강호영	김미혜	김미혜	유정옥	김실비아 최사도요한
12월 1일	정유진	손명근	민덕미	민덕미	김종선	한데레사 조바실리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 13,2

▶2024 맨하탄성당 대림특강 및 집중 판공성사

교우분들을 위해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대림특강에 초대합니다.

1.대림특강

12/15 (주일)	**강의 10:30~12:00** 김밥 12:00~12:30 고해성사 12:30~14:30	강의 : 김학범 알퐁소 신부	다미안홀

2.판공성사

나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수 있도록 교우분들을 고해성사에 초대합니다

12/15 (주일)	12:30~14:30	김학범 알퐁소 신부 (메리놀 미국관구 책임)	아래성당 고해소
		김찬미 가비노 신부 (평화신문 미주지사장)	
		김진열 가롤로 신부	

▶2024 청년들을 위한 대림특강 및 집중 판공성사

12/14 (토)	**고해성사** **16:00~17:50**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김진열 가롤로 신부	아래성당 고해소
	대림특강 18:00 청년미사중	강의 :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아랫성당

▶사랑의 음악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합니다.

강호영 민완준 김지영/조봉래 8282 이기수 손명희 안영옥 Jack Jun 강혜숙 큰집 원조 최정영 최예진 박알버트/아그네스 정승연 셀리나 양정윤 익명 7명 *후원금 최종 합계: **$ 4,200**

▶청년 땡스기빙 디너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식사와 게임도 즐기며 친목을 다져보아요~
일시: 11/28(목) 6pm 다미안홀, $30 (현장 $40)
문의: 청년회장 진현종 929-660-4456

▶청년 트리봉사

12월 첫째 주말 뉴튼 수도원에 머물며 트리판매 관련 봉사를 합니다. 남자분은 나무 자르기, 트리패킹등의 작업을, 여자분은 wreath 제작, 코코아 및 스낵 판매등을 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수도원에서 숙박 및 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시 12/7(토) 07:30~12/9(일)pm
문의: 청년회장 진현종 929-660-4456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오늘부터 성서 주간입니다. (11/24~30)

▶성경공부반

신부님반	시편과 지혜문학	2,4째주 토. 10am~11:30am	2B
수녀님반	사도행전~요한묵시록	매주일 12:40pm~1:50pm	1B
		매주목 10am-11:20am	3A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최고의 비타민~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 clearlaser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말씀 살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은유적인 동시에 명시적이며, 관념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요한 복음의 말씀 선포! 복음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 살아계시며,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삶 안에서 가까이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것이 말씀살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됨" 으로 묶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만남이며, 이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바로 서로 간에 일어나는 정서적 교감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면서 지니게 되는 정서적인 느낌은 우리 신앙의 정도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애석하게도, 참으로 많은 이들이 정서적인 면에서 무감정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 있는 이 신앙적인 공허감/건조함은 우리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실제이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사이 유독 많이 들려오는 쇄신이라는 말도 이와 상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쇄신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열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쇄신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의 쇄신을 그저 정의롭고 투명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움직임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쇄신이란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을 인지하는 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 여정의 중심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합니다.

성경은 양식이기도 하지만, 의약품이기도 합니다(베네딕도 규칙서 28.3: medicamina scripturarum divinarum). 건강을 위해 좋은 영양제를 찾고, 누군가는 영양제를 매일 챙겨서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챙겨서 복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살이 오르고 마음과 영이 넉넉해져, 기민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고 체험하여 신앙의 감각이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0회 성서 주간을 맞이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힘 있게 말씀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경택 안셀모 신부